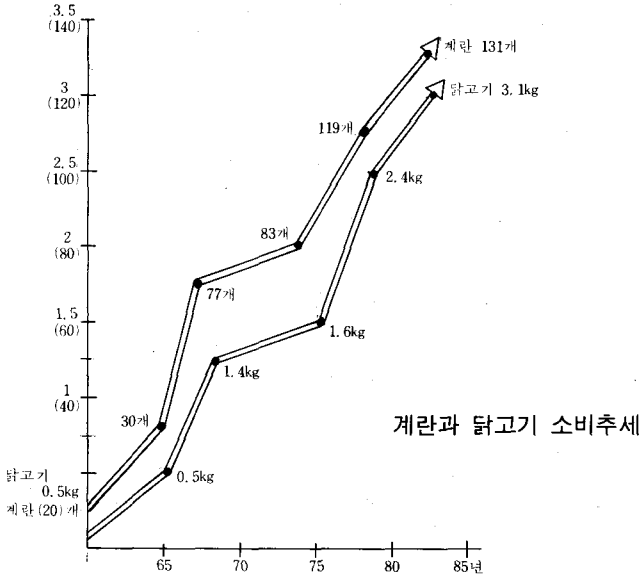


식품소비성향의 변화



이 정 환

농촌경제연구원

1. 식품소비량의 변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품소비 특성은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그러나 상당히 빠른속도로 변화되어 왔다(표1). 쌀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197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매년 1~2kg씩 감소하고 있고, 보리쌀의 소비량은 1975년까지는 소비장려정책으로 36kg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1970년대 소비량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쌀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현재 128kg인데 일본도 한때 150kg까지 소비하였으나 현재는 75kg정도 밖에 소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쌀, 보리의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축산물과 유지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는 1965년에 1인당 일년에 1.0kg밖에 소비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는 2.9kg, 돼지고기도 1.9kg에서 8.4kg, 닭고기는 0.5kg에서 3.1kg으로

늘어났다. 달걀은 1인당 일년에 1965년에는 30개정도 밖에 소비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131개나 소비하게 되었고 우유도 0.3kg에서 23.3k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채소는 1980년경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정체내지 감소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것은 점차 김치소비가

표 1. 식품별 1인당 연간 소비량변화추세

단위 : kg/인/년

	1965	1970	1975	1980	1985
쌀	121.8	136.4	123.6	132.7	128.1
보리 쌀	36.8	37.3	36.3	13.9	4.6
쇠 고 기	1.0	1.2	2.0	2.6	2.9
돼 지 고 기	1.9	2.6	2.8	6.3	8.4
닭 고 기	0.5	1.4	1.6	2.4	3.1
달걀(개)	30	77	83	119	131
우 유	0.3	1.4	4.6	11.0	23.3
유 지	-	1.5	2.7	5.0	8.4
채 소	45.5	59.9	62.5	120.6	109.2
과 일	11.3	13.1	15.0	21.8	35.2

감소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영양공급의 변화

이와 같은 식품소비의 변화에 따라 영양공급량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표 2). 한사람이 하루에 공급받는 영양분을 열량(Cal)로 나타내면 1965년에는 2,181Cal였으나 현재는 2,610Cal로써 日本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2. 영양공급량 추세

년 도	1965	1970	1975	1980	1984	1980 비교(日本)
(총열량(1일당 1인분))	2189	2370	2390	2485	2610	2512
구 성 비 (%)						
전분식품	89.3	84.3	80.8	76.4	71.4	49.7
동물성식품	4.4	4.5	5.9	9.2	12.1	16.3
설탕류	0.6	2.9	2.4	4.5	5.0	9.7
유지류	0.4	1.4	2.8	5.0	7.9	13.4
기 타	5.3	6.9	8.1	4.9	3.6	10.9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중 전분질 식품에서 공급되는 비율이 1965년에는 89.3%나 되었는데 현재는 71.4%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1960년대에는 거의 모든 영양이 쌀, 보리 등 전분질 식품에서 공급되었으나 점차 동물성식품, 유지류 식품 등에서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영양공급에서 축산의 중요성이 점차 더 커져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전분질식품에서 공급되는 열량의 비율이 50% 수준이고 이정도가 건강상 적정하다고 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분질식품의 섭취를 조금 더 줄이고 축산물, 유지 등의 섭취를 늘려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사람들은 이미 축산물, 유지 등을 지나치게 소비하여 비만, 당뇨 등의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적정히 균형잡힌 식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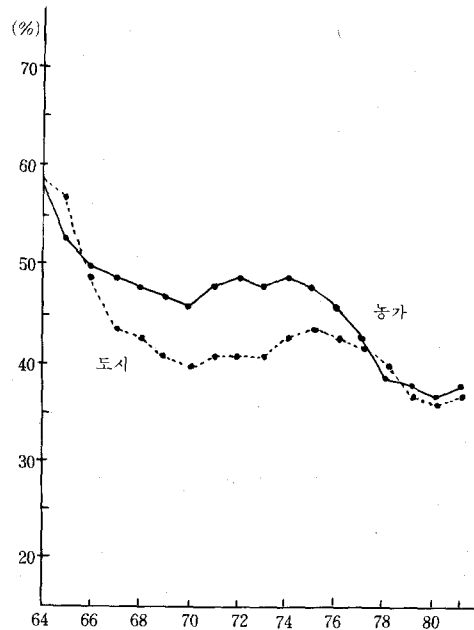
3. 식품소비지출변화

식품소비특성변화는 식품소비지출변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그림 1, 2, 3). 먼저 전체 가계비 중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64년에는 농가, 도시가계 모두 60%정도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37%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을 - 소득이 증가함에 식품비의 지출비중이 줄어드는 현상 - 앵겔의 법칙이라 하거니와 우리나라국민 생활에서 식품비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식품비중에서 곡물소비지출비중을 보면

그림 1. 식품비지출비율



농가가 도시가계 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농가가 쌀, 보리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도시사람보다 이러한 곡물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1965년과 1981년을 비교해 보면 농가, 도시가계 모두 곡물의 지출비중이 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외식, 다과류, 조미료 등의 지출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방식, 식단 등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2. 곡물소비지출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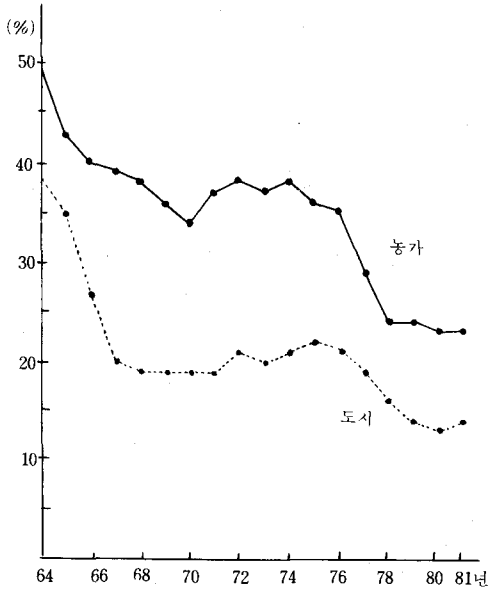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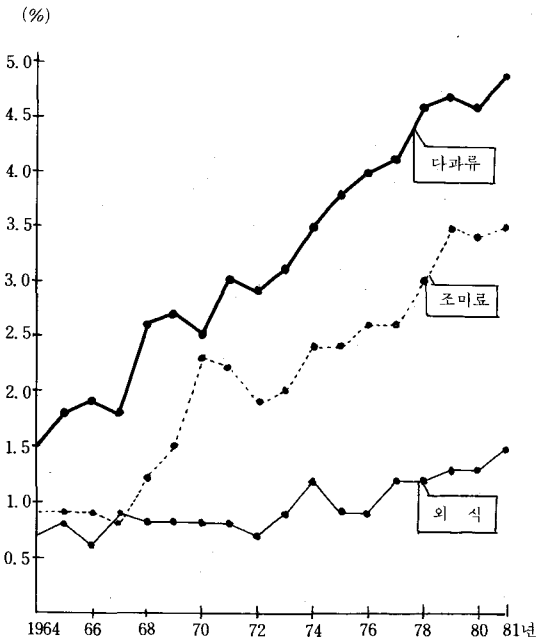


표 3. 소비지출비율이 증가하는 식품



4. 식품소비의 연령계층별 특성

식품소비의 변화는 소득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연령계층의 구성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식품소비 습관은 오랜 기간동안 특히 어린시절 반복되는 식생활을 통하여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므로 연령계층별로 식품소비특성, 선호특성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연령계층별 식품소비특성 차이를 알게 되면 소비량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어떤계층을 상대로 소비촉진활동을 하여야만 효과적으로 소비가 확대될 것인가를 파악하는데도 유용하다.

먼저 총식품소비 지출액을 보면 30~40세 계층에서 가장 많고, 나머지 계층은 40세 이상, 20대, 19세 이하 계층순으로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식품비 소비 지출이 증가하여 30~39세에서 정점에 달한 후 40세가 넘으면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령계층별 식품소비특성 가운데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3세이하 어린이 계층과 40세 이상의 장노년층(1983년 기준)이 식품소비패턴에 있어서 아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13세이하 어린이 계층은 우유, 소맥가공품, 과일, 육류 등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계층보다 현저히 높으나 쌀과 채소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서구식 식품 소비패턴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하여 40세이상 계층에서는 쌀, 어패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계층보다 높은 반면 과일, 우유, 소맥가공품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계층보다 낮아 전통적 식품소비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13세이하 어린이의 이와 같은 식품소비 패턴은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특성으로써 이러한 특성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소의 변화는 보이겠지만 이들 세대의 고유한 특성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식품소비의 세대적 특징이 소득과 가격요인 못지 아니하게 식품수요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어패류는 20~30세 계층에서 가장 선

호도가 낮고, 소맥가공품은 6~13세 계층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류는 30~50세의 장년층에서 가장 현저하게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대신 채소에 대한 선호도가 이 연령 계층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쌀 소비량변화를 보면, 20~30대 청년계층이 1977년에는 40세이상 계층과 같은 양을 소비했으나, 1983년에는 이들보다 23.8kg이나 적은 양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13세 계층은 14~19세 계층과 같은 양을 소비했으나 1983년에는 이들보다 22.4kg이나 적은 양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쌀소비감퇴현상이 파상적으로 고연령층에 파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7~1983년 사이에도 4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서는 도리어 쌀소비량이 약간 증가하여 쌀소비감퇴속도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쌀소비감소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30대이하 세대를 대

상으로 한 집중적 소비장려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육류의 경우를 보면 14~19세에서 지출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현상은 1977, 1983년 모두에서 관찰되고 있으므로 14~19세는 육류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나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1983년에는 50~59세에서, 그리고 1977년에는 40~49세에서 두번째 골(谷)이 나타나므로 현재 50대인 세대는 육류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목하여야 할 것은 육류에 대한 지출비율이 20세이하 연령계층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20세이상 연령계층에서 대단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의 육류소비 증가는 청장년층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계란은 연령계층간 선호도차이가 적으나 현재 40~49세 계층에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세대적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

— 생산직 사원모집 —

1. 부문 및 인원 : 부화 및 종계관리부 수명.
2. 자 격 : 전문대졸 축산학과전공자 및 다년간의 현장경력자
3. 제 출 서 류 : 이력서 1매, 사진 1매, 자기소개서 1매
4. 제 출 기 간 : 1986. 7. 10~1986. 8. 31
5. 제 출 장 소 : 서울 성동구 능동 246-10(우성빌딩 301호)

홍성농원 서울사무소(TEL. 452-0077)